

건축에서 변화관리와 새로운 도전

Managing Changes and Facing New Challenges in Architecture

사회 변화와 신건축 환경

지난날 산업 사회는 산업화의 논리로 지칭되는 내재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인구 변천으로부터 근대적 가치관의 확산에 이르는 근대 산업사회의 변화 과정은 공업화, 도시화, 관료제화이었으며, 생활양식, 정주양식, 조직화 양식과 직결된 그러한 동향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외연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거시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사회 구조적 유연화와 사회 가치의 다원화라는 질적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시대적 전환을 재촉하고 그 결과 현대 사회는 특성 가치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부분 간 경계가 완화되는 다원적 유연화라는 개방체계를 지향한다. 그런데 물질적 생활수준은 물론이요, 상징적 문화가치가 더불어 중시되는 현대적 생활 체계는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학지식의 대중화와 문화 개념의 범속화라는 이원적 과정에 의해 상호 배타적 대립적 관계로 돌입함으로써 과학과 문화의 영역 파괴가 촉진되어 기술 문화라는 거대한 복합적 긍정체가 출현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 영역과 문화 영역간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기술의 문화, 문화의 기술화가 전개됨으로써 기술로서의 문화 혹은 문화로서의 기술을 주장하는 기술문화론이 설득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건축은 창조와 재현이라는 구상적 활동을 내포한 창의적 산업 활동의 전형인 까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문화적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불어 업역 경계의 소멸과 부분의 확대라는 기술문화의 흐름에 따라 건축사의 업역도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 전공으로 나름대로 학문과 기술이 발전되어 독자적 사업 영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업역으로만 생각하고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보다 이렇게 된 원인 분석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변형성, 선택성이 고조되어가는 미래사회에서 독창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유와 감정, 말하자면 심미적 성찰성이 중시되어 갈 것을 예측하여 오히려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하고 끌려가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건축물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무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확대된 업역에 대한 담론보다는 실행할 때라고 생각한다.

변화 속에서의 대응

이제까지 건축설계 업무 내용은 창작 예술성과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공급형의 대량수주 위주의 업무를 소화해

내므로 사업의 방법이라기보다 단순 운영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의 부작용으로 설계의 저가수주와 고급인력을 양성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사무소의 운영이 유지 가능하였던 것은 IMF 이전까지 건설 산업이 전체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급증하는 업무량에 각 사무소는 수입의 안정속에서 설계 인력의 수급이 잘 안될 정도로 양적으로 매년 팽창하는 필요로움의 무풍지일 때도 있었으나 예고 없이 불어 닥친 IMF 체제하에서도 시장변화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위기 대응을 위한 생존 대책으로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별다른 대안이 없이 막연히 지나간 좋은 날이 다시 오기를 바랄뿐이었다.

통계적으로 2002년 허가 면적은 IMF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꾸준히 늘어난 회원과 만성적 저가 수주의 악순환 속에 21세기 초입의 건축 환경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 새로운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설 투자 환경도 소유 중심에서 투자 중심,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미디어, 인터넷 발달로 폐쇄적 시장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지는 등 금융의 역할이 커지므로 기업형 도시개발과 개발 시행사의 역할이 건축설계 수주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도시의 재생 방식이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라 소규모 부분계약 업무에서 신도시 대규모 지구단위 이행 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철저히 경쟁 원리에 따라 사무소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업무량 감소로 운영 방식에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고도의 기술정보 등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별 전문화, 업무 내용별 전문화, 건물 용도별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개별전문화 또는 통합 방식으로 건축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사의 역량도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모방과 답습에서 탈피, 고정 관념을 뛰어 넘는 창조력과 독창력을 요구하고 신지식, 신감각, 전문가 정신의 강한 추진력, 분석력을 갖춘 리더십과 조정능력 등 다양한 문화를 이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 설계 디자인의 감각적 경쟁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거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졌다. 건축사와 설계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인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 그리고 조직의 기술 축적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 진행의 합리적, 능률적 운영뿐만 아니라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또 다른 건축에서 살 길

사회변화와 환경에 강요된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해 내외부적인 건축 여건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

는 것과 함께 국내 건축시장의 변화 환경과 선호 그리고 기술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업무용뿐만 아니라 주거부분에서도 최고층 건축물에 대한 선호와 높이 경쟁이 심화되고, 교토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환경친화적, 방재적 건축물의 요구도 활발하여 새로운 정보산업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와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를 촉발했던 난개발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목표가 건축법 등 관련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건축법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용도지역 행위제한 내용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법 등으로 세분되었고, 재건축과 관련된 개별적인 건축도 별도의 법적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되는 등 과거 건축법만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많은 건축행위가 별도의 좀 더 까다로운 법적용 내에서 이해되고 운영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축 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건축에서의 역할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살아남기를 하기 위해서도 자체의 개발적인 자기 혁신과 새로운 변화 즉 고객의 기대와 선호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하여 이제는, 보편적인 전문가로 유지하여 왔던 과거에서 통합연계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 통합유도로 업무의 규모를 중·대형화 할 수 있고 협력 설계 구축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준비와 역할을 협회가 하여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업역의 확대에 관심을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건축사의 용역 범위에서 이미 허용된 설계, 감리 이외에도 리모델링, 인테리어,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Fast Track(설계방식업무), 분양관련 업무, 건축물의 사후관리, 건설사업관리(CM), 지구단위계획, 건물조사감정, 종합계획도, 건축공사사업, 타당성 분석업무,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업무만이라도 업역으로 확실히 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공공 건축사의 업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협회 조직 내에 각 전문설계협의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잃어가는 업역의 회복과 설계 이외의 또 다른 건축 업무로써 전문화 능력이 발휘될 때 건축사의 자긍심과 안정적인 직업으로써 보다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며, 이렇게 하므로 협회의 존재와 안정적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협회나 회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